한국강사신문
KOREA LECTURER NEWS



# 강남구립즐거운도서관, '색채와 이야기가 있는 엄마 인문학' 운영

한상형 기자 | 승인 2022.09.29 12:06

[사진출처=강남구립즐거운도서관]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강남구립즐거운도서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색채와 이야기가 있는 엄마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참여자인 ‘엄마’들은 스스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둘러싼 색채를 새롭게 바라보고 나와 색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와 그림을 담은 에세이집을 10월 20일 출간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참여자들이 쓴 글을 직접 낭독하는 ‘엄마의 이야기, 낭독회’를 10월 13일 진행한다. ‘엄마의 이야기, 낭독회’ 영상은 강남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인 한지운 박사를 중심으로, 여행작가이자 카피라이터인 진유정 작가와 아트스튜디오원의 임혜정 강사의 코칭이 더해진 이번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엄마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잠재력을 이끌어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강남구립즐거운도서관은 ‘예술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기혼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독려하며, 새로운 재능의 발견과 더불어 자아실현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상형 기자** han@lecturer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